

대선 지지율 1·2위 만났다...“거대 여당 책임 막중”

민주당 대권 잠룡 이낙연 의원·이재명 지사 경기도청서 회동
이낙연 “경기도가 국정 앞장서 끌어줘”...이재명 “당에서 큰 역할 해달라”
시종일관 덕담 주고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묘한 신경전도 감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와 2위를 달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회동했다. 이번 만남은 민주당 유력 당권·대권 주자인 이 의원의 전국 순회 일정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이재명 지사가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외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이 의원을 만나 “총리로 재직 중이실 때 위낙 행정을 잘 해주셨다”며 “문 대통령님의 국정을 잘 보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덕담을 건넸다.
이에 이 의원은 “최대 지지체인 경기도가 지사님의 지도 아래 때로는 국정을 오히려 앞장서 끌어주고 여러 좋은 정책을 제안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지지체와 국회와 혼연일체가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이 지사는 이어 “민주당이 지방권력에 이어 국회 권력까지 차지해 국민의 기대가 높다”며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중추적인 엄중한 시기여서 능력이 높으신 이 후보님께서 당에서 큰 역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시도지사, 국회의원들이 총 집중해서 국민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려야 할 것 같다.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지사는 자신이 추진하는 기본소득도시제, 기본주택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정발

의상을 할애했고, 이 의원은 이를 수첩에 받아 적기도 했다.
이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여름휴가에 들어간 이 지사는 휴가 첫날인 이날 도청으로 잠시 복귀해 이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은 취재진 앞에서 10여분간 만난 뒤 지사 집무실로 옮겨 배석자 없이 비공개 면담을 이어갔다.
이날 회동은 시종일관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에 애한 모습을 보였지만, 보이지 않는 묘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이 지사가 “총리 재임 시절에 정말 잘 됐던 것 같다. 도지사로 지방행정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하자 이 의원은 “기간이 짧아서 얼마나 도움이 됐겠습니까는 없었던 것보다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지사가 지방행정 경험을 강조하자 전남지사를 4년 가량 한 이 의원이 “기간이 짧았다”고 답한 것이다. 조선인 이 지사는 3년째 도지사로 재직중이다.
회동 제안을 두고도 누양스가 다소 달랐다. 경기도 측은 전날 “이 후보 측의 요청으로 접견한다”고 공지했으나, 이 의원은 “이 지사가 국회 일정이 있다고 해서 ‘그럼 안 보고 가겠다’고 하니깐 이 지사 측이 11시에 도청으로 온다고 해서 만남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회동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지율이 이 지사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에 대한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 있다. 민심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마주 앉은 잠룡 1·2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30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실시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 의원은 28.4%, 이 지사는 21.2%를 얻었고,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 조사에서는

이 의원 24%, 이 지사 20%로 나타났다. 순위는 그대로 유지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이 지사의 지지도가 이 의원에게 근접할 정도로 격차를 좁힌 것이다.
또 이 지사가 자신을 ‘흙수저’, 이 의원을 ‘엘리트’로 비교하며 “살아온 삶의 과정이 다르다”고 차별화한 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보탬 말이 없다”면서 “(이 지사가) 엘리트 출신이라고 한 게 아니라 엘리트 대학 출신이라고 말한 걸로 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김부겸 “행정수도 오락가락” 이낙연 “보완하자는 취지”

당 대표 임기 놓고도 신경전
민주 당권주자 첫 TV 토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김부겸·박주민(기호순) 후보가 첫 TV 토론회에서 행정수도도 당 대표 임기 문제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지만 이슈를 형성하지는 못했다는 평을 받았다.
30일 정가에 따르면 지난 29일 이들 당권주자는 대구MBC가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기존에 논란이 됐던 부분을 강조하는데 급급했고, 토론 내용도 깊이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정당대회이기에 국민적 관심을 이끌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날 김부겸 후보는 이낙연 후보를 상대로 “(이 후보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대변인이던 시절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2004년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장에서는 ‘호남이 손해를 본다’면서 반대했다”면서 “과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입장이 몇 번 바뀌었다”고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말한 기억이 나느냐”, “철학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소극·보수적인 것 같다”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 자체에 반대했다기보다는 비수도권 지방과의 불균형이 생기는 경우 대해 보완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였다”며 “당시 호남 의원으로서 호남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세종시에도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당 대표 임기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펼쳤다. 김 후보는 여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에게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사임하면 (임기가) 정확하게 6개월 10일 정도”라며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당 운명이 걸려 있는데 선장이 자리를 비우고 배에서 내린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책임 있게 처신하겠다”며 “비상시국기에 구원투수 심정으로 나서는데 구원투수가 9회 말까지 다 던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낙연·김부겸 후보와의 차별화에 공을 들였다. 그는 인사말에서 “전환의 시대 앞에 섰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상상력과 과감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 후보는 당헌·당규상 무공천 논란이 있었던 서울·부산 등 내년 4월 재보궐 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연말쯤 결정”(이 후보), “낼 수밖에 없는 사정”(김 후보), “연말보다 더 빨리 결정”(박 후보)이라고 각각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대선후보 조건에 성평등 교육 포함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 공개
국민경선 흥행 위해 ‘슈퍼위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 후보 조건에 성평등 교육 이수를 명시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초안은 대체로 기존 규칙을 유지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거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피선거권자의 경우 성 평등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새로 넣었다.
경선 투표 방식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반영, 오프라인 사·군·구 투

표소 투표를 폐지하고 온라인 투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국대의원 및 관리당원은 순회경선 투표 일정 에 따라 주소지 관역에서 투·개표하고, 국민·일반 당원의 경우 경선 흥행 차원에서 ‘슈퍼위크’를 별도로 지정해 투·개표하기로 했다.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선거 전 100일’로 늦추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특별당규가 아닌 당헌·당규 개정 사항으로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초안일 뿐이고 지금부터 의원과 당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의결수령)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공정 시비’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경선률을 조기에 확정해 8·29 정당대회에서 특별당규 형태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